

# 러시아어에서의 직시 연구

## — 기호적 속성을 중심으로\*

김 정 일\*\*

### 1. 들어가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는 소통 참여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이때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직시(deixis)이다. 직시는 통상적으로 대상이나 장소, 사건, 시간 등의 의미를 그들의 발화상황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직시는 어떤 언어표현에 대한 해석이 그 언어표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맥락에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주관적인 코드화 방식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화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sup>1)</sup>

직시가 기본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맥락의존성은 Jespersen과 Jakobson의 전환사(shifter) 개념에 의해 규정된 바 있으나, 직시가 동사와 같은 특정한 형태적 범주와 관련되는 것만이 아닌 담화의 전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직시를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는 직시라는 언어기호체계가 야기하는 논란의 상당부분이 직시라는 범주 자체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sup>2)</sup> 왜냐하면 결국 직시란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M0057).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Lyons(1978)는 언어내에는 궁극적으로는 대면적인 소통을 위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언어 내에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그의 지적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직시의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지하듯이 Jakobson(1957/71:134-5)은 러시아어 동사가 모두 4가지의 직시범주(인칭, 시제, 서법, 증거성)와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직시범주들은 메

언어체계의 문제이자 동시에 언어 사용의 문제이고, 텍스트 내적 문제임과 동시에, 텍스트를 둘러싼 외적 환경과의 문제이며, 이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들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Nunberg(1993:1)는 you, here와 tomorrow<sup>3)</sup>와 같은 어휘들과 다른 어휘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들 어휘들이 지니는 맥락 의존적 성질과, 이들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어휘들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특이성을 주목한다. 예컨대 you는 “발언의 수신인”과 같은 기술적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1)의 발언과 (2)는 동일하지 않으며, (2)의 경우는 심지어 어색하기까지 하다.

(1) Oh, it's you.

(2) ?Oh, it's the addressee of this utterance.

Nunberg에 따르면 (1)의 경우처럼 화자가 자신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뒤늦게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인해 화자가 놀랄 수도 있지만, (2)의 경우와 같이 수신인이 동어 반복적으로 기술된 상황에서는 (1)에서와 같이 화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문장자체가 어색하게 들린다는 것이다.<sup>4)</sup> 이는 직시가 언어표현과 대상과의 관계만을 단순히 지시

시지에 대한 인용(메시지를 지시하는 코드)이 필수라는 점에서 여타의 언어코드와는 구분되며, 이들은 지표와, 그것이 제시하는 대상과의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는다. 예컨대 'I'라는 기호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I'라는 기호는 그 대상과 존재론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I'라는 기호는 동시에 지표적인 성격도 지니게 된다. 가장 전형적이며, 통상적으로 가장 지표적 성격이 강한 'I'가 상징적 성격 역시 지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 Nunberg가 여타의 언어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시(deixis)라는 용어 대신 지표사(indexical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언어철학에서 지표적 성격을 지니는 언어기호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지표사라는 용어는, 직시와 지시대명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4) 그는 지표사를 “그것이 발언의 맥락에서 어떤 요소를 끄집어낸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시물이 그 어떤 요소와 맺고 있는 관계의 관점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기술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직시적 구성요소, 분류적 구성요소, 그리고 관계적 구성요소로 구분된다. 직시적 구성요소는 단어를 발언의 맥락 속에서 어떤 요소와 결합시켜주는 것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어느 부분을 정교화하고 초점을 맞추는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해당 언어표현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하는 맥락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맥락이 궁극적으로는 언어 외적 상황 속에 위치한 대상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직시는 기본적으로는 언어 외부를 지향한다고(exophoric)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직시의 다양한 하부유형들이 언어외적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직시개념 및 직시의 다양한 발현양상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언어 외적세계에 위치한 대상과 실존적 관계를 맺는다는 직시의 자질은 우리에게 퍼스(Peirce)적 개념으로서의 지표(index) — 도상이나 상징과는 달리 대상과의 실존적 관계를 특징으로 삼는 — 를 떠올리게 한다. 지표가 보여주는 다양한 층위들은 이러한 다양한 실존적 관계들의 반영이며, 궁극적으로는 지표의 중요한 기호적 속성 중의 하나가 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Nunberg를 위시한 언어철학자들이 직시라는 표현 대신에 지표사(indexical)<sup>5)</su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직시가 가지는 지표적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표성이라는 자질만으로 직시라는 언어표현기제가 가지는 다층성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Rauh(1983:11, 23-30)는 상징적 의미는 그들의 유형적인 의미인 반면에, 지표적 의미는 그들의 토큰(token)적 의미라는 Burks(1948:681에서 재인용)의 지적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here”)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표적이지만 “화자에게 가까움”이라는, 탈맥락적으로

---

이고, 분류적 구성소는 어떤 표현의 해석과 관련되는, 성, 수 혹은 활물성과 같은 자질들을 포괄한다. 관계적 구성소는 지표와 해석간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어제’라는 단어는 “발화순간(직시적 구성소)의 뒤를 따르는(관계적 구성소) 달력속의 날짜(분류적 구성소)이다. ‘어제’가 ‘내일’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관계적 구성소의 측면이고, ‘작년’과 구분되는 것은 분류적 구성소의 측면이다. 이러한 설명은 대명사 ‘we’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발언의 화자 혹은 화자들에 의해 예시되는 일련의 사람들”이라고 의미가 기술되는 ‘we’는 그것이 일인칭이라는 직시적 구성요소, 그것이 복수이고 활물성을 지닌다는 분류적 요소, 그 지표가 해석을 예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적 구성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Hanks(1990) 역시 전형적으로 직시가 세 가지 속성을 지니며, 그 중에서도 관계적 속성이 특정 직시표현을 규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Nunberg의 입장에 동의한다.

5) 본 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언어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지표사(Indexical) 대신 직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정적인 의미론적 층위 역시 지니며, 그것은 “여기(herе)”라는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매우 관례화되고 익숙해진, 따라서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장시키고 있다.<sup>6)</sup> Kaplan(1978)은 이에 앞서 상징적, 지표적이라는 용어대신 앞서 특징(character)과 내용(content)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직시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에 주목한 바 있다.<sup>7)</sup> 결국 직시는 지표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의 상호 길항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언어기체이며, 이 두 가지 기호적 속성 중 어느 것이 주도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직시표현의 성격 역시 규정가능하다고 본다.

## 2. 본론

### 2.1. 직시에서의 지표성

직시는 대상체와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 기호 사이에 실존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실존적 관계가 다분히 상대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며, 맥락 내에서의 현저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지표성을 중요한 자질로 가지는 언어 범주라 규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sup>8)</sup> 초기 형식 의미론자들이 의미론과 화용론을 각각 지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에 대한 연구와, 지표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연구로 구분한 것도 언어기호와 대상지시체 사이의 실존적 관계,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의미론만의 독자적 영역 — 전형적인 상징기호로서의 — 을 구축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sup>9)</sup> 역설적으로 화용론의 영역을 지표성이 가지는 맥락의

6) 2.3.에서 밝히겠지만, 필자는 ‘여기’와 ‘지금’의 맥락적 다양함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근거를, 이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탈맥락적 불변의미에서 찾고자 한다.

7) 직시가 지니는 상징적 성격에 대해서는 본문 2.3.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8) 대상과의 구체적이며 일차적 지시 관계의 배면에는 추상적이고 이차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후자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9) 물론 형식의미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내포와 외연과의 관계가 (수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세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결국 객락과 발화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존성과 관련하여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성의 개념을 직시라는 언어기체의 차원으로 편입시킬 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Kaplan(1989)은 지표성을 지니는 직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I', 'now', 'today'와 같은 이른바 순수한 직시(pure indexicals)로서, Kaplan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로 어떤 지칭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10)</sup> 이들은 발화 내에서 자기 완결적이며 그 의미는 디폴트적이어서 이들의 이해를 위해 별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들이 지칭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I'는 화자를 지칭하고, 'now'는 발화순간을 지칭하며,<sup>11)</sup> 'today'는 발화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지칭한다. 이들 순수한 직시들을 이용하여 다른 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있는 자유는 화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this'와 'she'<sup>12)</sup>와 같은 이른바 순수하지 않은 직시들은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는 순수한 직시와 자질을 공

황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Levinson(1983)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이러한 기준에 따르자면 모든 자연언어는 필연적으로 화용적이 될 것이며, 따라서 형식의미론자들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맥락과 발화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언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언어로는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10) 이것은 Reichenbach(1947)가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지시적 토큰(reflexive token)이라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지표들은 이른바 토큰이라는 관점에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는 바로 자기지시적 토큰(I)을 말하는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고, 'now'는 바로 자기 지시적 토큰(now)이 말해지는 시간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this pen'은 "바로 이 토큰(this token, 즉 this pen)을 수반하는 제스처에 의해 지시되는 펜"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와 'now'는 'this pen'과 같은 지시사와 구분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Reichenbach 역시 지표들 중에는 진술만으로 지표성을 획득하는 것과 동반하는 지시행위로 지표성을 획득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수한 지표들이 항상 자기 지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에게 오늘이란 없다"에서의 '오늘'이나, "진정한 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에서의 '나',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이다"에서의 '지금' 등은 메타퍼적 사용의 예로서, 지표적 성격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11) 그러나 Kaplan의 견해와는 달리, '지금(now)'은 발화순간을 지칭하는 것 이외에도 매우 풍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어나 한국어를 비롯하여 범언어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3인칭 내러티브에서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 12) 물론 여기에서 'she'나 'that'은 아나포라(anaphora)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유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획득을 위해 지칭행위<sup>13)</sup>를 동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this'가 멀리 있는 대상을 지칭하지 못한다든가, 'she'가 남성을 지칭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요인은 있지만, 이러한 제약만 해결된다면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의 여지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결국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Recanati(2001:2)가 지적하듯이 화자의 의도이다. 결국 이들은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지각행위의 동반이 요구되는 직시와(순수하지 않은 직시) 그렇지 않은 경우(순수한 직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직시의 경우에 화자의 지각영역에 있는 여러 후보 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로 유일하게 선택되고 그것을 현저화시키는 지표로서의 기호적 속성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this'나 'she'와 같은 순수하지 않은 직시의 경우, 그것이 관례적으로 지니는 의미론적(상징적) 자질을 충족시키는 것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표중심적 순수한 직시와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된다.<sup>14)</sup>

대상이 화자의 (언어 외적 현실 속에서의) 지각영역(혹은 더 나아가 인지영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존재사실 그 자체)을 확인하는 작업은 직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5)</sup> 그리고 이 점이 대상이 화자의 (언어내적 현실

13) 여기에서 지칭행위는 비단 제스처와 같은 지칭 행동뿐 아니라, 언어적 지칭행위도 포함한다.

14) 여기에서 지각영역의 내부나, 현저성이라는 개념은 지표성에 대한 퍼스적 이해를 상기시킨다. 퍼스의 기호학에서 지표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인접성이나 인과성, 혹은 다른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와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퍼스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은 모두 어떠한 지각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징후(symptom) (2)실마리(clue) (3)흔적(trace)이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징후는 실질적인 인접성과 실질적인 인과성이 결합된 것이고, 실마리는 추정된 인접성과, 비실제적인 인과성의 결합이며, 흔적은 비실제적 인접성과, 추정된 인과성의 결합이다. 이들 모두는 지각을 그 기저에 깔고, 그를 바탕으로 인접성과 인과성을 추정하고, 결합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5) 어원상 직시(δειξις)는 '가리킴'을 뜻한다. Булыгина(1992:158-173)는 직시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들과 언급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폴로니우스는 직시의 대표적인 예로 지시대명사를 들면서, 지시대명사는 보통의 명사들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의 명사는 통상적으로 대상들에 어떠한 속성들을 귀착시키는 반면에, 지시대명사는 단지 그 대상을 지시할

속에서의) 지각 영역 속에 존재하는 아나포라나, 지칭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지시대명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예컨대 초인종 소리와 방문자의 존재와의 관계는 지표적이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경우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초인종 소리와 방문자의 존재사이의 관례적이고 습관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대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으로 흔히 하는 질문 “Кто это?” 에 대한 “Это я!”라는 대답이나, 혹은 집안 어디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동생을 부르며 “Где ты?”라고 소리칠 때의 “здесь”라는 대답이 정보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я’나 ‘здесь’라는 특정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해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각케 함으로써,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상황에서 ‘я’나 혹은 ‘здесь’가 정보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체로서의 대상을 지칭하기<sup>16)</sup> 때문이지 ‘я’나 혹은 ‘здесь’의 의미자질을 기술하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맥락 속에서 현저화될 수 있는 개체로서의 대상이지, 자질로서의 대상은 아니다.

아래의 예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발화 당시의 상황과 연관하여 미국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통령의 자질적 측면에서 해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지표성은 첫 번째 해석인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에서만 발견된다.

(3)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been short.

(Nunberg 1993:5)

뿐이라는 것이다. 직시가 보여주는 자질 지향적이 아니라, 대상 중심적인 전통은 아폴로니우스의 언어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Булыгина는 또한 근대 언어학 연구에서는 독일의 인도 유럽언어학자인 Brugmann(1904)이 수십 개의 언어를 표본 조사하여 네 개의 직시유형을 구분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유형은 각각 (1)De-Deixis (2)Ich-Deixis (3)Du-Deixis (4)Jener-Deixis이다. (1)유형은 마치 제스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вог’, ‘это’, ‘этот’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고 (2)유형은 화자의 영역을 둘러싸는 것으로서 ‘я’ 이외에도 ‘этот’, ‘близкий ко мне’, ‘здесь’, ‘около меня’등을 포함하며 (3)유형은 청자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서 ‘ты’, ‘этот твой’, ‘этот близкий к тебе’, ‘здесь’, ‘около тебя’ 등과 연관되고 (4)유형은 멀리 떨어진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тот’나 ‘там’을 들 수 있다.

16) Nunberg의 용어를 빌리자면 indicative이다.

하지만 본질상 이러한 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류들, 즉 특정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대상을 소통의 현장에서 곧바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나 소통 현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전제되어 있거나, 혹은 고유한 대상을 추출하기 곤란한 고유명사나, 물질명사, 총칭명사 등은 직시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표성의 의미는 바로 맥락 내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시가 가지는 이러한 현장성은 진리치의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 아래의 예를 보라.

(4) В 1707 году Император Пётр I принял указ "о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на случай вторжения неприятельского, укрытии пограничными жителями хлеба и сена в ямах, заготовлении мест для людей в лесах и болотах заранее."<sup>17)</sup>

1707년 황제 표트르 1세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예방책과, 국경지대 주민들이 빵과 건초를 구덩이에 감추는 것, 사전에 숲과 습지에 대피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칙령을 승인했다.

(4)와 같은 문장의 진리치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소통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참임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장의 생성이전에 이 문장의 진리치는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император Пётр’를 ‘я’와 같은 직시어로 대체할 경우, 진리치의 결정은 그 직시어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대상과 상황간의 일치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유보된다.

## 2.2. 비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직시, 지표성과 상징성

소통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소통과정에서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메시지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발화주체로서의 화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적인 발화상황은, Падучева(1984:235)가 지적하듯이 (1)화자와 청자는 발화의 흐름 속에 소외되지 않고 존재해야 하고, (2)어떤 메시지의 생산은 그것의 지각순간과 일치해야 하며 (시간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위

17) 본 예문은 [www.ruscorpora.ru](http://www.ruscorpora.ru) 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예문 중 출처가 별도로 제시되어있는 많은 예문들은 상기 사이트에서 수집한 것임을 밝힌다.



치는 동일하다), (3)화자와 청자는 동일한 장소에 있고 통상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동일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야(장소의 동일성) 한다는 3가지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2)와 (3)은 (1)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반면, (2)와 (3)은 서로 독립적이다.<sup>18)</sup>

하지만,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표준적 발화상황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수없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표준적 소통 상황이 훨씬 우세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편지나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이른바 직시적 투사의 상황 등을 비표준적 소통행위의 예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소통행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비표준적 소통행위이다. 심지어 표준적인 발화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도 소통이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비표준적 소통행위(소통이 일방적이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것은 직시 표현이 화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청자를 기준으로 삼는 직시적 투사의 경우이다. Lyons(1978:579)는 라틴어에서의 서간문 과거시제(epistolary Past Tense)를 직시적 투사의 한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시제는 화자가 글을 쓰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관습은 수신인이 편지를 받을 때에는 편지를 쓰는 현재의 순간이 이미 과거에 속하게 된다는 극도의 청자 정향적인 관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직시적 투사는 공적인 장소들에서 포스터와 공고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흔히 볼 수 있는 “здесь не курят”과 같은 공고문에서 ‘здесь’는 이곳(here)을 의미하는데, 이 곳은 공고문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현재(now) 위치해 있는 곳이며, 화자의 위치는 공고문의 해석과는 비유관적이다. 12시간의 시차가 나는 곳으로 밤 9시에 전화를 걸면서 Доброе утро!이라고 인사하는 것, 상대방이 있는 곳에 간다는 의미에서 ‘прийти’를 사용하는 것, 포스트잇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곳을 알려주고자 “Сейчас я у бабушки”<sup>19)</sup> 라는 메모를 남겨 놓는 다거나, 자동응답기에

18) 실제로 몇몇 직시표현들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전형적인 발화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Падучева(1996)가 들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러시아어에서 там은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시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전형적 발화상황을 전제한 후, 화자와 청자 모두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공간을 지칭한다. 예컨대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이 Аbo에 있는 어떤 사람과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 “я скоро там буду”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대신 “у вас”라고 말해야 한다.

19) 여기에서 ‘сейчас’는 발화시가 아닌, 메시지가 수신되고 이해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сейчас’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보다 상세히

“Сейчас меня нет в...” 등으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행위,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에게 이동을 요구할 경우, 이동방향을 상대방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직시적 투사의 확장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들은 직시가 지니는 지표성의 대표적인 자질인 화자의 지각 작용과 대상의 현장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에서의 메타퍼적인 변용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퍼적 변용은 기호와 대상간의 공통적이며, 불변적 자질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성격을 떨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전형적 소통상황에서나, 화자의 특정한 발화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관점이 취해질 때, 직시와 대상간의 관계는 종종 지표적 성격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보다 부각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상징은 다양한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변적 자질과, 관례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화자의 지각영역이 청자의 지각영역으로 투사되는 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화자의 지각영역이, 과거의 기억 혹은, 분리된 ‘나’ (무의식이나 꿈)로 투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다. (5-a)의 경우는 지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я’가 적절한 맥락의 도움없이 지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소통맥락이 매우 어색할 수 있는 문장이다.<sup>20)</sup> 외냐하면 지각과 의식의 주체로서의 화자를 상징하는 직시개념에서는 화자와 대상은 결코 서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사적 조작을 통해 (5-b)에서와 같이 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제시되거나, 혹은 예문 (6)에서 보여지듯 화자의 지각이 과거의 경험으로까지 투사되어 그 경험 속에서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화자를 회상의 객체로 끄집어내 현저화될 경우 이들은 무리 없이 허용됨을 알 수 있다.

---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сейчас’의 “발화와 시간적으로 가까움”이라는 상징적 속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경우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발화는 생산순간을 정향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소비순간(누군가 그 메시지를 듣고 보는 순간)이 중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소비되는) 발화와 시간적으로 가까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0) Апресян(1986:290)은 지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я’의 속성과는 달리, ‘я’가 객체가 될 것을 요구하는 동사들의 예로 ‘маячить’, ‘виднеться’, ‘исчезать из виду’, ‘как сквозь землю провалиться’와 같은 동사들과, 색깔과 관련된 동사들인 ‘белеть’, ‘желтеть’, ‘зеленеть’, ‘краснеть’, ‘темнеть’, ‘чернеть’ 등을 들고 있다.

- (5) (a) \*Я показался на дороге.  
 \*Я исчез из виду.  
 \*Только моё тело белело в темноте.  
 (b) Иван сказал, что я показался.  
 (Апресян 1986:290)

- (6) Как только я показался в дверях, то наследник захлопал ручонками и залепетал: "Новый, новый, новый."  
 내가 문에 나타나자마자, 후계자가 박수를 치고는 떠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심지어 마치 아나포라와 유사하게 선행발화에 주목하되, 선행발화의 명시적인 언어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화의 전반적인 텍스트 공간 — Grenoble(1998:9)의 용어를 빌리자면 텍스트 세팅 — 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sup>21)</sup> 한편 화자와 청자의 대면적 관계라는 기본적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발화상황과는 달리,<sup>22)</sup> 직시표현의 정향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서사텍스트에서는 발화상황과는 전혀 다른 직시적 관계가 성립된다. 무엇보다 서사 텍스트는 작가/화자와 독자/청자와의 일차적 관계 이외에도, 독자/청자가 이야기 세계와 맺는 이차적 관계에 바탕을 두게 되며, 발화텍스트에서와는 다소 상이한 지각의 주체를 요구하게 된다.

직시가 기본적으로 (확고한 지각 주체인 화자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견해는 Bühler(1934)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진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Lyons, Fillmore, Levinson 등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지만, 비규범적 소통상황과 서사텍스트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직시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강한 주체(ego)의 상정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등장한다. 예컨대 Mühlhäusler and Harré (1990)는 대명사와 인칭직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통상황에 대해 가지는 환상 즉 경험적인 코드입력-코드해석이라는 환상(도관적 메타퍼인)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며, 화자와 청자를 화자와/화자 이미지로 대체하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비교적 충실히 따르

21)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전통적인 직시개념에서는 직시가 그 발화가 발생한 상황(발화가 위치한 현실세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이때 화자는 발언의 중심이 되며, 화자가 위치한 장소, 화자가 발언한 순간 등이 담화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다.

고 있는 Levinson(1988) 역시 화자와 청자라는 개념적 범주가 소통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거나 혹은 적어도 과도한 단순화라 지적하고 있으며, Hanks(1990)는 직시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준점(origo)<sup>23)</sup>이지 주체(ego)일 필요는 없으며, 더구나 기준점(origo)은 반드시 화자 혹은 청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통의 순간마다 발생하는 관계적 자질을 디폴트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sup>24)</sup> 물론 이와 다소 상이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바흐친의 경우는 사회 이데올로기적 사실, 혹은 발화 공동체를 직시의 기준점(origo)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혹은 중재적인 입장에서 Падучева나 van Schooneveld는 레지스터(register)에 따라 관찰자 개념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층적인 직시 중심에 대응하여, 직시의 층위 역시 매우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그 결과 Rauh(1983:20-23)나 Grenoble(1998:5), Hanks(1990:67)에서와 같이 직시층위의 복합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 차원의 직시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소수의 표준적 소통상황과 대다수를 구성하는 비표준적 소통상황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다층적인 직시 중심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표준적 상황과는 다른 비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직시는 결국 화자와 맥락, 그리고 대상들 사이의 지표적 관계들이 다양한 비표준적 소통상황으로 투사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차적인 지각의 영역에서의 현저성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현저성으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현저성이 추상적 공간으로의 현저성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형성되는 담화 공간이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투사되는 과정에서 직시가 가지는 다층성이 점차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3. '여기'와 '지금' - 직시인가 아나포라인가?: 담화직시의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교류가 발생하는 표준적 대화소통과정과는 달리, 내러티브는 그것이 구어체이든 아니면 문어체이든 참여자들에게 선

23) Rauh(1983), Grenoble(1998) 등이 이러한 기준점(origo)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24) Hanks(1990:7) 역시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화자를 중심으로 본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직시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시의 중심을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중심적 차원의 주체(ego)로 볼 것을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주체는 사회적 구조이며, 발화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형적으로 인식된다. 이 선형성은 시간축을 따라 흘러간다는 점과 일정한 방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텍스트의 일부를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정초시키는 담화직시 역시 기본적으로 표준적 소통상황으로부터의 메타퍼적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메타퍼적 확장은 특정 언어기호가 가지는 관례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과도한 인지적 노력이 소비되는 것은 아님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내러티브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담화직시는 참여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하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의 특정부분에 대한 지칭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주의 깊게 따라가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원의 직시 가운데에서 시간과, 공간, 사람에 대한 직시가 대상과 언어기호와의 문제라면, 담화직시는 언어기호와 대상으로서의(혹은 대상으로 메타적으로 투사된) 언어기호와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직시는 텍스트를 생산한 언어외적 맥락을 지각의 장으로 설정하고, 그 지각의 장 내에서 적절한 대상을 지칭하는 'context' 지향적인 반면에, 담화직시는 일차적으로는 언어내적 맥락 즉 해당 텍스트를 가능하게 한 혹은 응집적이고 정합적인 텍스트로 만들어준 이전텍스트와의 관계, 즉 'co-text' 지향적인 모습을 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인 직시와 담화직시는 context와 co-text의 관계에서, 세계와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거울상을 이루며, 특히 담화직시는 텍스트 자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성이자 재귀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

아나포라가 담화직시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이러한 자기지시성과 재귀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아나포라 역시 다른 텍스트를 지향하지만, 맥락과의 유관성이 그 이후에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아나포라는 무엇보다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응집성(cohesion)에 주된 관심을 두며, co-text의 특정 언어표현과의 공지시지성에 무게를 두지만, 그러한 공지시성이 context의 차원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sup>25)</sup> 담화직시들의 다음의 예를 보라.

25) 우리가 담화직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의 경우 직시중심이 화자이거나 혹은 청자이거나 혹은 화자로부터 확장된 발화공간인 여타의 직시와는 달리(따라서 그 공간 내에서의 개체에 대한 지시와 그 개체와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문제시되는 여타의 직시와는 달리) 텍스트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체가 직시적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각적 장이 외부세계가 아닌 언어 텍스트 내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담화직시의 성격이 앞서 언급한 자기지시적, 재귀적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사 텍스트 내에서(혹은 비전행적 소통 상황 내에서) 특정 언어표현이 지니는 직시적 성격과 아나포라적 성격이 규명되

(7) The money part of it isn't eh: anything, is it.

Oh, I see. And then say you wanna get married. Cause it makes it hard.

(Schiffrin 1987:253)

예문 (7)에서 'then'은 전형적인 담화직시로서, 그 자신을 중심으로 이전 텍스트와(아나포라적으로) 이후의 텍스트를(카타포라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then'은 시간적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화제와 이후의 화제를 무리 없이 연결시켜주는 담화직시로 기능한다. 즉, 시간 전환적 기능이 화제 전환적 기능으로 전이된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의 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8) Через две минуты Коля понял в первый раз за три месяца супружеской жизни, что любимая женщина любит морковные, картофельные и гороховые сосиски гораздо меньше, чем он.

— Значит, ты предпочитаешь собачину диетическому питанию? — закричал Коля. В горячности не учтя подслушивающих соседей.

— Да говори тише! — громко закричала Лиза. И потом ты ко мне плохо относишься. Да! Я люблю мясо! Иногда. Что же тут дурного?

2분이 지나 콜라는 결혼 3개월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당근이나, 감자, 완두콩 소시지등을 자기보다 훨씬 덜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당신은 개고기를 야채보다 더 좋아한다는 말이야?

콜라가 소리쳤다. 화가 나서는, 듣고 있는 이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 조용히 좀 해요 — 리자가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군요. 그래요. 나는 고기 좋아해요. 때로는 말이죠. 뭐가 나쁘다는 거죠?

(И. Ильф и Е. Петров, «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

예문 (8)에서도 'потом'은 전형적인 담화직시로서, 본래의 시간적 교체라는 본래의 기능이, 상이한 두개의 담화화제 사이의 교체를 신호해 주는 역할로 전이되고 있다.<sup>26)</sup> 예컨대 야채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식성에서, 자신에 게 남

기 때문이다.

26) 'потом'이 수행하는 담화직시로서의 기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Grenoble (1998)을 참조하라.

편이 취하는 태도의 문제로 화제가 교체되도록 함으로써 분위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전형적인 직시중심인 화자가 부재하는 서사텍스트에서는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독자(혹은 제 3자를 비롯한 관찰자)의 시선이 화자를 대신하게 된다. 발화 텍스트나 혹은 표준적인 소통상황 내에서의 직시에서는 언어 기호와 그 기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문제가 되었다면, 서사 텍스트에서는 언어 기호와 텍스트 속의 대상, 그리고 텍스트 밖의 독자(혹은 관찰자)와의 관계가 일차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직시들은 일정부분 다른 담화를 지향하는 담화직시로서의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된다.

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 사이의 관계를 통사적 관계로, 언어기호와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론적 관계로, 그리고 언어 기호와 그 사용자의 관계를 화용적 관계로 규정하는 고전적인 분류법을 따른다면, 서사텍스트에서 (담화)직시는 보다 화용적 차원에 - 텍스트의 사용자인 독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에서 - 정향되는 반면, 아나포라는 선행 텍스트 속에서 공지시되는 대상의 의미파악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차원에 보다 정향된다. 전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후자는 특정 언어 표현이 주어진 텍스트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담화)직시와는 달리 아나포라는 질료로서의 텍스트를 질료차원의 다른 텍스트와 견주어 언어기호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yons는 담화직시가 그 본질상 아나포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담화직시가 가지는 자기 지시적 성격과 연관하여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나포라는 공지시적 표현 혹은 대상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자기 지시성이 전제되는 반면에, 서사 텍스트 내에서 (담화)직시에서는 자기 지시성이 (새롭게) 단언되기 때문이다.<sup>27)</sup> 이들 둘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시성의 문

27)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직시를 아나포라보다 빨리 획득한다는 점은 많이 지적되어왔다. 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Lyons(1978:673)이 Isard(1975)를 재인용하여 들고 있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즉, 아나포라는 그 지시체가 이미 어떤 담화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반면에, 직시는 어떤 개체를 우리가 차후에 가리킬 수 있도록 담화 세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나포라가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기호들 간의 응집성(cohesion)을 유지하고자 하는 메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제를 다루되, 그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담화직시는 과연 아나포라적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논쟁의 중심에서 있는 ‘여기’와 ‘지금’의 문제를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앞서 필자는 ‘여기’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표적이지만 ‘화자에게 가까움’이라는 의미론적 층위 역시 지니며 그것은 다분히 상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 Rauh(1983:23-30)의 견해를 인용하며, 직시라는 언어기제 속에서는 대상지칭적인 지표적 성격 이외에도 의미론적 층위를 구성하는 상징적 성격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주장한 바 있다. 표준적 상황에서의 직시와 대상간의 관계로부터의 메타퍼적 투사를 통해 비표준적 상황에서의 직시와 대상간의 관계가 확장된다는 점 또한 언급한 바 있다. 화자와 청자가 대면하고 있는 표준적인 소통상황에서 ‘здесь’는 발화가 발생한 장소를, ‘сейчас’는 발화가 발생한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здесь’와 ‘сейчас’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발화시와 발화 장소가 아닌 보다 광의의 발화시와 발화 장소를 지칭할 수 있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예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Мельчук(1985:261-268)에 따르면, 러시아어에서 ‘сейчас’는 발화 순간을 가리키거나(“Сейчас он занят.”) 혹은 발화순간의 바로 직후를 포함하며(“Сейчас приду.”), 발화의 바로 직전순간을 가리키고(“Коля сейчас тут сидел.”), 또한 화자에 의해 마치 발화순간인 것처럼(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과거의 순간을 가리키는(“Сейчас она внушала жалост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본다면 ‘сейчас’를 현실속의 특정 대상과 존재론적 관계를 맺는 지표적 성격으로서의 직시 - 즉 발화시 - 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발화 장소를 가리키는 ‘здесь’ 역시 극도의 좁은 공간에서부터(“здесь в этой комнате”) 매우 넓은 장소까지(“здесь в Москве”, “здесь в России”) 다양한 공간을 지칭하는 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здесь’와 ‘сейча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здесь’나 ‘сейчас’의 기호로서의 상징적 속성에 주목한 Rauh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러시아어에서 ‘здесь’는 발화 장소를 포함하거나, 발화 장소와 가까운 장소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сейчас’는 발화시를 포함하거나, 혹은 발화시와 가까운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Recanati(2000, 2001, 2005)나 Krasner(2006)등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Kaplan적 개념으로 보자면, ‘здесь’



와 ‘сейчас’는 순수하지 않은 직시가 되는 셈이다. 이들은 발화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혹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시간과 공간을 지칭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그 시체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시간과 공간이 그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2.1.에서 보았던 ‘that’이나 ‘she’와 같은 순수하지 않은 직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삼인칭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сейчас’와 ‘здес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러티브는 근본적으로 화자나 청자와의 관계가 절연된 별개의 텍스트이고, 따라서 표준적 소통상황에서 적용되었던 직시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여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Падучева(1996)와 같이 내러티브에서 ‘сейчас’와 ‘здесь’가 아나포라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sup>28)</sup> 언어적 구조물인 내러티브는 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현실세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직시어는 필연적으로 아나포라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삼인칭 내러티브에서 ‘сейчас’는 서술화자나 등장인물과 동일한 내러티브내의 시간축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내러티브에서의 ‘сейчас’와 ‘здесь’역시, 비표준적 소통 상황에서의 ‘сейчас’나 ‘здесь’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비표준적 소통상황(자동응답기나 메시지)에서 ‘сейчас’와 ‘здесь’가 “소통시점과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상징적 자질이 활성화되어 작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에서도 “내러티브내의 시점 혹은 시간의 흐름과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상징적 자질이 활성화된 경우라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아나포라로서 내러티브 내의 특정한 언어표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Grenoble(1998)의 용어를 빌리자면, 내러티브내의 특정한 언어표현이 구성하는 텍스트 세팅을 지칭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나포라가 아닌 직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 하다.

(9) Он, Тиверзин, вышел, хлопнув дверью, и зашагал вперед, не оборачиваясь.  
Его окружали осенняя сырость, ночь, темнота... Этот мир был ему сейчас ненавистнее.

28) Corazza(2006) 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Падучева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티베르진은 문을 광하고 닫고 나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가을의 습기와 밤과, 어둠이 그를 감쌌다. 이러한 세계는 그에게 지금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Падучева 1996: 272에서 재인용)

Падучева는 이와 같은 구문에서 ‘сейчас’는 선행텍스트에서 고정된 어느 한 지점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아나포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сейчас’를 담화직시로 간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сейчас’를 아나포라로 간주할 경우 내러티브 내에서 ‘сейчас’가 수행하는 고유한 기능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이는 ‘сейчас’를 전형적인 아나포라인 ‘тогда’와 교체할 경우 텍스트 내에 주어진 여러 시점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매우 어색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소통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сейчас’의 상징적 자질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서 ‘сейчас’는 “가을의 습기와 밤과 어둠이 그를 감싼” 바로 그 시점(텍스트 세팅)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Падучева(1996:270)는 ‘здес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래의 예를 보라.

(10) Годá через два перешел он в Училище живописи, пробыл здесь чуть ли не пятнадцать лет и кончил по архитектурному отделению, с грехом пополам, но архитектурой все-таки не занимался, а служил в одной из московских литографий.

2년이 지나 그는 미술학교로 옮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15년을 지내다가 건축학과를 겨우 졸업했다. 하지만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고, 모스크바의 한 석판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Падучева 1996:270에서 재인용)

그의 설명을 따르자면, 예문 (10)에서 아나포라적인 ‘здесь’는 여기에서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내러티브 내에서의 시점과의 공간적 근접성”을 지칭하는 ‘здесь’의 상징적 성격의 의미자질을 고려해본다면,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이 쉽게 인지적 근접성으로 투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здесь’는 공간적으로 모스크바의 석판공장보다 가까운 미술학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미술학교가 인지적으로도 보다 가깝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따라서 이후의 사건전개과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독자로 하

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문체적 효과를 가진다. Падучева는 이 예문에서 본인이 아나포라라고 규정한 ‘здесь’대신, 전형적인 아나포라인 ‘та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들 ‘там’과 ‘здесь’와의 문체적 효과상의 차이는 설명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나포라들 사이의 선택의 문체는 화용적 차원이 아닌, 의미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체는 ‘здесь’를 아나포라가 아닌 직시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сейча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라.

(11) — Я спрятала брильянты в стул, — упрямо повторила старуха. Ипполит Матвеевич вскочил и, посмотрев на освещенное керосиновой лампой каменное лицо Клавдии Ивановны, понял, что она не бредит.

— Ваши брильянты! — закричал он, пугаясь силы своего голоса.

— В стул! Кто вас надоумил? Почему вы не дали их мне?

— Как же было дать вам брильянты, когда вы пустили поветру именьи моей дочери? — спокойно и зло молвила старуха. Ипполит Матвеевич сел и сейчас же снова встал. Сердце его с шумом рассылало потоки крови по всему телу.

— 나는 보석들을 의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네 — 완고하게 노파가 반복했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석유램프에 비추어진 클라우디아 이바노브나(장모)의 돌과 같이 굳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 당신의 보석들이라니요! — 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에 깜짝 놀라면서 그가 소리쳤다.

— 의자 속이라니요! 누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었어요? 왜 나한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구요?

— 내 딸의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줄 수 있었겠나? 노파는 침착하고도 악의에 차서 말했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앉았다가 금세 다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큰 소리를 내며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고 있었다.

(И. Ильф и Е. Петров, «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

예문 (11)에서도, ‘сейчас’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형성되는 시점과 가장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점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어 ‘сейчас’는 짧은 구간내의 사건의 발생을 지칭함으로써 사건의 긴박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 3. 결론

본 글은 직시가 가지는 두 가지 기호적 속성인 지표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에 주목하여, 직시가 가지는 다층적 성격들이 결국은 그것의 지표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시는 대상과 존재론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표적 성격을 지니며, 또한 그 속에 고정불변의 의미론적 요소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징적 성격 역시 지님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직시표현들은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표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기도 하고 상징적 성격이 두드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통행위는 통상적으로는 표준적인 발화상황에서 보다는 비표준적인 발화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표준적 발화상황에서의 대상과 직시표현사이의 관계가 비표준적 상황에서의 대상과 직시표현 사이의 관계에 대응되는, 이른바 메타퍼적 투사가 이루어지고 이 때 기호가 가지는 상징적 속성들이 보다 부각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는 발화텍스트뿐 아니라 내러티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러티브에서는 ‘지금’과 ‘여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러시아어 표현들이 대화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이들 표현들이 가지는 상징적 성격들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내러티브 내에서 아나포라가 아닌 직시로서 기능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직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은 소통행위를 구성하는 다면적, 복합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기용(1984) 「러시아어에 있어서의 아나포라」, 『슬라브학보』. 제9권, 한국슬라브학회.
- 장인봉·이성범·전혜영·최명원(2004) 『화용론 연구』. 태학사.
- Апресян, Ю. Д.(1986) "Дейксис в лексике и грамматике и наивная модель мира," *Семантика и информатика*. М: ВИНТИ. вып. 28.
- Булыгина, Т. В.(1992)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в языке. Коммуникация, модальность, дейксис*. М: Наука.
- Мельчук, И.(1985) "Семантические этюды. 1. 'Сейчас' и 'тепер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Russian Linguistics*. 9/2-3, pp. 255-279.
- Падучева, Е. В.(1974) *О семантике синтаксиса*. М: Наука.
- \_\_\_\_\_ (1984) "Deixis in a narrative text: General strategies of interpretation," Björklund., Lundberg, Helena, Orlov, Janina(eds.). *Carina Amicorum*. pp 234-251.
- \_\_\_\_\_ (1985) *Высказывание и его соотнесенность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М: Наука.
- \_\_\_\_\_ (1996)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_\_\_\_\_ (2001) "Наблюдатель в системе диатез глагола восприятия,"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секая границы*. Дубна.
- Серебренников Б. А.(1988) *Роль челове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в языке. Язык и мышление*. М: Наука.
- Яковлева, Е. С.(1990) "О связи дейксиса и модальности,"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Противоречивость и аномальность текста*. М: Наука.
- Anderson, S. & Keenan, E.(1985) "Deixi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rews, E.(1990) *Markedness Theory. The Union of Asymmetry and Semiosis in Language*. Duke University Press.
- Brugmann, Karl(1904) "Die Demonstrativpronomen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Eine bedeu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bhandlungen der*

- philologisch-historischen Klasse der Königl. Sächsischen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22/6. Leipzig: Teubner.
- Bühler(1934/1982) "The Deictic Field of Language and Deictic Words," Jarvella, R. J. & Klein, W.(eds.) *Speech, Place and Action*. Chichester: John Wiley.
- Burks, A. (1948-1949) "Icon, Index and Symbo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IX, pp. 673-689.
- Cornish, Francis(1999) *Anaphora, Discourse, and Understanding: Evidence from English and French*. Clarendon Press, Oxford.
- Corraza, Eros(2004) "On the Alleged Ambiguity of 'now' and 'here'," *Synthese*. 138, pp. 289-313.
- Fillmore, C. J.(1975) *Santa Cruz Lectures on Deixi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_\_\_\_\_ (1997) *Lectures on Deixis*. CSLI Publications.
- Green, Keith(1995) "Deixis: A Revaluation of Concepts and Categories," Green, Keith(ed.), *New essays on Deixis*. Rodopi.
- Grenoble, L. A.(1998) *Deixis and Information Packaging in Russian Discourse*. Amsterdam.
- Isard, S.(1975) "Changing the context," Keenan, E.(ed.),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London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kobson, R.(1957/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 Vol. 2. Word and Language*. The Hague, pp. 130-147.
- Jarvella, R. J. & Klein, W.(eds.)(1982) *Speech, place and action*. Chichester: John Wiley.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Jones, P.(1995)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he Study of Deixis: a Critique of the Standard Account," Green, Keith(ed.), *New Essays on Deixis*. Rodopi.
- Kaplan, D(1978) "Dthat," Cole, P.(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9) "Demonstratives," Almog, J. et al.(eds.), *Themes from Kap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1-563.
- Krasner, Daner Asher(2006) "Smith on Indexicals," *Synthese* 153, pp. 49-67.
- Levinson, Stephe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Pragmatics and the Grammar of Anaphora," *Journal of Linguistics* 23, pp. 379-434.
- \_\_\_\_\_ (1988) "Putting Linguistics on a Proper Footing," Drew, P. & Wootton, A.(eds.) *Erving Goffman: Exploring the Interactive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pp. 161-227.
- Lyons, J.(1975) "Deixis as the Source of Reference,"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Semantics. Vol 2*. Cambridge: Univ Press.
- Mühlhäusler, P. & Harré, R.(1990) *Pronouns and People: The Linguistic Construction of Social and Personal Identity*. Blackwell.
- Nunberg, Geoffrey(1993)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pp. 1-43.
- Predelli, Stefano(1998) "I Am Not Here Now," *Analysis* 58:2, pp. 107-155.
- Rauh, G.(1983) "Aspects of Deixis," *Essays on Deixis*. Tübingen: Narr.
- Recanati, F.(2000) *Oratio Obliqua, Oratio Recta. An Essay on Metarepresentation*. Cambridge: Mass.
- \_\_\_\_\_ (2001) "Are 'here' and 'now' Indexicals?" *Texte* 127. pp. 115-125.
- \_\_\_\_\_ (2005) "Deixis and Anaphora," Zoltán Gendler Szabó(ed.), *Semantics vs. Pragmatics*. Oxford: Clarendon Press.
- Schiffirin, Deborah(1987) "Discovering the context of an utterance," *Linguistics* 25, pp. 11-32.
- Smith, Quentine(1989) "The Multiple Uses of Indexicals," *Synthese* 78, pp. 167-191.
- van Schooneveld, C. H.(1978) *Semantic Transmutations: Prolegomena to a Calculus of Meaning*. Vol. 1, Phylsardt.

## Abstracts


## A Study on Deixis in Russian — The Attributes of a Sign

Kim, Jung-Il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at the multiple characteristics of deixis are due to the relati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ypical attributes (indexical and symbolic) of a sign. Deixis has indexical characteristics in that it keeps ontological relations with referents, and it also has symbolic characteristics in that it has invariant semantic elements.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deictic expressions in various kinds of registers, we can see very different aspects of these two characteristics. Unlike our expectations, non-standard communications are very widely used. And in non-standard communications, relations between the deictic expressions and their referents show more symbolic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ose in standard communications. Relations between deictic expressions and referents in the standard communications are metaphorically, and cognitively projected to the non-standard communications, and symbolic characteristics of the deictic expressions become more salient. This is similarly applied to the other types of the registers.

In the narratives, unlike in the conversations, the symbolic characteristics of the deictic expressions, especially in the case of 'here' and 'now', are more activated and make themselves function as a discourse deixis rather than as an anaphora.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7. 10. 11
	논문심사일: 2007. 10. 19 ~2007. 11. 15
	심사완료일: 2007. 11. 18